

남술요

변리사

변리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특허법

2차 기본강의

- 특허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각 논점의 정확한 주소를 설명
- 불필요한 내용(학설 및 낡은 판례)은 과감히 배제하고 판례 원문을 기반으로 판례의 정확한 의의를 설명
- 각 논점에 따른 사안 포섭 방법 설명

일 정

2022. 11. 5(토) ~ 11. 27(일), 오전, 토~일 강의, 총8회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11/13(일), 11/19(토) 강의 없음
※11/12(토), 11/20(일) 저녁 보강

교 재

- 신 특허법(저자, 제2판, 출간예정)

강 의 특 징

1. 수강 대상

- (1) 특허법 2차 시험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및 동차 합격을 노리는 수험생
- (2) 특허법의 방대한 양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
- (3) 특허법을 오래 공부했지만 2차 시험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수험생

2. 강의 진행 방향

[1] 단순히 수험생분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점검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분들은 특허법 전반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2차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2차 시험에서는 수험생분들께 특정 문제에 대한 O, X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16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지식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남솔잎 변리사 강의계획서

특허법 2차 기본강의

강 의 특 징

많은 수험생분들이 16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학설 및 판례를 암기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열심히 학설 및 판례를 암기하지만, 정작 실제 시험장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곤 합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것에 집중하여, 키의 방향이 애초에 삐뚤어져 있는 것을 모르는 형국입니다.

사례형으로 구성되는 문제에 대해 한 페이지 이상의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례를 한 줄 더 외웠냐가 아니고 해당 사례에 적합한 논점 및 결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논술형 시험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지 않습니다.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2차 기본강의는 단순히 1차 때 익혔던 지식을 복습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해당 판례가 왜 판시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해당 판례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논리로 쓰였는지 원문 그대로의 문장을 통해 그 논리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는 판례 원문을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어떤 키워드로 판례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의 2차 기본 강의를 통해 특허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2] 판례 원문 그대로 빠지는 논점 없이 소개시켜 드리지만, 전체적인 분량은 20% 이상 줄였습니다.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면서도 이런 극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한 이유는, 기존에 아무런 비판 없이 답습되었던 케케묵은 학설 및 검토 등은 과감히 배제하고 불필요한 판례를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학설은 여러 교수저 및 논문의 교차 검증을 통해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수험계에서 소개되는 판례들 중에 이제는 활용되지 않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판례도 계속하여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판례들이 수험계에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낡은 판례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가장 최신의 판례들로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3] 추상적인 사안 포섭 방법이 아니라 명확한 사안 포섭 방법을 설명합니다.

결국 2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점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제대로’ 쓴다는 것은 정확한 논점을 기재하면서, ‘사안 포섭’을 풍부하게 적는 것입니다.

10개년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각 조문의 요건 및 판례의 요건을 적용하여 어떤 식으로 사안을 기재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번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고 나면, 앞으로 진행되는 사례 강의 및 GS 강의에서 답안지를 어떻게 현출해야 하는지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